탐방취재-송탄 기지촌 클럽

한국속의 제국주의 문화

신식민지화에 사용되는 국민 혈세
미군범죄 온상…현대판 '소도' 방불

현재 4만 5천명 정도의 주한 미군이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미군 1인당 약6천2백만원 가량을 '방위분담금'의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다.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6백만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만한 돈이면 최근에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이나 교육부 예산쯤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미군은 방대한 기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에 필요한 훈련비, 생활비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의정부 윤금이씨 살인사건에서 보았듯이 미군 기지촌은 현대판 '소도'를 불사할 정도로 범죄의 온상이 되어져 왔고, 이러한 한국내 기지촌의 수는 의정부, 동두천, 송탄, 평택 등 크고 작은곳을 포함 1백80여곳에 이른다.

송탄의 기지촌의 경경은 클럽, 외국인들 여느 이태원의 거리나 압구정의 거리와 흡사하다. 그러나 기지촌의 수많은 클럽들은 종업원, 댄서 등 종사하는 모든 인력이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내국인 출입금지', '미군전용 클럽'이란 푯말을 붙여 미국인들을 위한 한국인의 클럽이란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러한 클럽은 크게 4가지 계층으로 분류된다. 제1계층-미군장교들의 전용 클럽, 제2계층-미군장교 및 미군병사(백인 우선), 제3계층-기지촌의 미군병사들과 한국인 여성, 제4계층-미군과 한국인, 이처럼 기지촌의 클럽들은 우리의 땅에서 장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들만을 위한 상업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클럽의 내부에는 빨갛고 어두운 조명 아래 뮤직비디오의 시끄러운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이태원이나 그의 지역의 한국 클럽과 비교하면 외형상 별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 클럽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한국인 보다는 미군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모든 클럽 내부의 문화가 미국인들의 취향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은 대개 한국인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주를 이루며 찾아와 미군들과 함께 뒤섞여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군과 연계하여 미국에서의 환상적(?)인 삶을 꿈꾸며 찾아온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이처럼 범죄의 온상에 자신의 몸을 맡기려는 여성들이나 기타 기지촌의 심상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미군의 범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미군들과 한시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마소없이 애처러운 눈빛을 하고 있는 클럽의 댄서들, 클럽의 2층에서 미군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밖에 볼 수 없는 여성들. 한국 속의 현대판 신성지역 '소도'임을 다시한번 절감시켜 주는 그러한 장면들이었다.

클럽을 나오면서 "Hello!, Hello!"를 외치며 미군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한 할머니의 애처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현대판 정신대의 길을 걸고 있는 클럽의 여성들과 이 할머니의 모습에서 신식민지적 사회상을 다시한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신세대적 American Dream'을 형성하고 있는 미군 기지촌의 모순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반성과 기지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모상용 記者〉

◇한국땅의 한국인과 미국인인가. 미국땅의 한국인과 미국인인가. 기지촌은 한국적 정체성을 상실한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연극

우리극장 '아버지를…'

극단 '우리극장'이 제20회 정기공연으로 '아버지를 바꿔서다'를 공연하고 있다.(연출 고금석)

'아버지를…'은 아버지의 모자가 가져다준 보이지 않는 권위와 힘으로 인해 온가족이 대소동을 벌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히르쉬휠트'의 원작을 우리상황에 맞게 번안, 각색한 이 작품은 외설시비로 논란이 많은 가을 연극계에 청소년을 위한 작품으로 잔잔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공연은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단의 지혜를 심어 주고 어른들에게는 가부장적 권위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하여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연극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극장'은 이번에 20여

곡의 음악을 삽입하여 세미 뮤지컬을 시도하였으며 팬토마임, 마술, 무용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세트의 소품을 온갖 폐품으로 꾸미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11월5일~12월22일 평일 4시30분, 7시30분. 토, 일요일 3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대학로 충돌 소극장L(745-9710)

위협받는 경희문학 대책 시급

국문과 "문학 특기생 발굴해야…"

경희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가. 그렇다고 단정짓는다면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선뜻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게 하고 있다.

조세희, 조태일, 한수산, 정호승 등의 문인을 배출하여 문단에서 한 흐름을 이루었던 경희문학은 여량 있는 신인작가를 출현시키지 못하면서 정체되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신인작가의 배출이 예년만큼 뚱성하지 못한 것은 81년, 대학입시가 본고사에서 학력고사로 전환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학 특기생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자타가 문학적 소질을 인정하는 커다란 자랑거리였다. 실제로 고원정, 정호승, 하재봉 등은 문학 특기생 출신으로 경희문학을 탄탄히 했다. 문학 퇴조의 또다른 원인으로는 전국 고교생 문예 공모가 그 기능을 상실한데 있다. 그러나 고교생 문예도 대입제도의 변화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즉 가장 권위있는 고교생 문예로 인정받은 우리 학교 문예 공모에서 당선되더라도 학력고사가 대입의 잣대가 됨에 따라 입학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학할 경우 주어지던 4년간의 장학혜택마저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없어지면서 고교생 문예는 의례적인 행사로 그 격이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4입시부터 다시 문학 특기생 입학이 허용됨으로써 문학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교육부에 문학 특기생 입학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유해는 무산됐다. 김재홍(문리대 국문)교수는 "담당 부서인 교무처에서 통보해오지 않아서 국문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교무처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신용철 교무처장은 "기준 선정의 어려움으로 학력고사제도하에서도 실시해오던 채육을 제외하고는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도 제외했다"며 "올해는 다른 학교의 경우를 지켜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하튼 문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은 발굴하고 고교생 문예도 활성화시켜 경희문학의 재도약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국문과 교수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중석 記者〉

인터뷰 유재하 음악제 은상 수상 **정수월양**

"음악의 순간성에 매료됐어요"

객관적 평가 받으러 출전…'나'만의 세계 추구할 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을 받게되어 무척 기뻤어요. 기존의 발라드풍이 아닌 약간 록이한 분위기가 좋은 점수를 받은것 같아요."

지난 10월 31일 '제5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자작곡 '그루터기'로 은상을 차지한 정수월(문리대 불어·3)양은 간단히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음악가족 틈에서 자라나 어려서부터 피아노, 기타, 모카리나 등 여러 악기를 연주해온 정양은 자작곡으로 수상하게 됨으로써 가창력, 연주, 작곡 3박자 모두 갖춘 셈이 됐다.

"전문적인 평가로 자신의 음악성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참가동기를 밝히는 정양은 "싱어송라이터들을 위한 유악경연대회가 점점 늘어나 음악의 질이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나름대로 이번 대회를 평가하기도 했다.

정양은 부산삼성여고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캠퍼스 순수통기타 동아리 '뮤직라인'에서 활동중이다.

음악뿐아니라 미술, 문학, 무용 등에도 다재다능한 정양은 굳이 음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기가 절린 낚싯대를 챙깽히 당기는 듯한 음악의 순간성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지난해 가을에 음악을 향한 자신의 길을 굳혔으며, 대학졸업 후에는 캐츠의 본고장인 미국에 유학가고 살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정한 틀 속에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아니냐고 음악관을 밝히는 모습이 무척 건강해 보였다.

〈전제연 記者〉

□새로 나온 책

'한국현대사 이야기 주머니'

구체적사건 통한 현대사 이해

왜곡되고 파편적이고 편파적으로 서술된 우리 현대사에 좀더 객관적으로, 보다 온당하게 접근하려고 한 책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가 출판되었다.

지금까지의 진보적 현대사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주로 정치적 사건을 통해 한국현대사를 보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 서술 방식에 있어 학문적 문제의식과 이야기의 흥미로움을 결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셋째, 충분한 문제의식은 살리되, 판단의 몫은 독자들에게 돌리자는 의도로 객관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한 주관적인 판단과 단언적 평가는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 3권으로 분책되는 이 책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92년 6공화국까지의 역사를 전체 7부로 구성하고 있다.

제1부는 해방정국의 사건들이며, 제2부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3부는 주로 반공독재와 이에 대한 반테제로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와 민족적 저항과 관련이 있다. 제4부와 제5부는 산업화 과정상의 군부독재와 이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다수이다. 제6부와 제7부는 재등장한 군부독재와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마찰기였고 그 후반기부터는 국제적으로 발발전의 세계사적 변화가 진행되었던 1980년대의 사건들이다. 그런 민큼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반냉전을 앞두고 막바지에 달했던 역사의 진통을 보여 주고 있다.

사건을 통해 우리 현대사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이 책은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 일반인을 위한 대중역사서이다. 도서출판 녹두/5천5백원(전3권)

□경희문화

바람개비 '아름다운…'

가사를 중요시하며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추구하는 하내음 악동아리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기억이고 싶기에'란 타이틀로 열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13, 14일 3시 6시 압구정동 신나라 콘서트홀 입장료 6천원 당일 구입 가능)

1기부터 10기까지 전기수에 걸쳐 출연하는 이번 공연에서 '바람개비'는 창작곡, 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계획이다. 한동준, 장필순, 낯선 사람들도 초대손님으로 출연한다.

그림자놀이 영화상영

영화연구회 '그림자놀이'는 '목요 영화 감상회'를 매주 학생회관 4층 여백에서 마련한다. '그림자놀이'는 여백의 한쪽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액정을 쏘아 영화를 상영하며 관람료는 없다. 영화는 매달 주제별로 설정되며, 11월달은 '로드 무비'영화를 기획하여 첫주의 'Easy Rider'에 이어 이번주에는 '이이다 호'가 상영된다.

'그림자놀이'는 목요 감상회 외에도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토요 감상회와 영화상영 후의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공감대 락 콘서트

공감대가 '제2회 락 콘서트'를 오는 11월3시 공대 시청각실에서 갖는다.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재호(토목·2)군은 "공감대는 음원단 소속의 유악패이기 때문에 평소 응원을 위한 연주만을 하게 됐다. 이러한 공연을 통해서 응원을 위한 음악이 아닌 공감대 단원들이 추구하는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번 공연에서 공감대는 stoll got the Blues, speak for yourself (Gary Moore)등 15곡을 무대에 올린다.

불고기파티 가을공연

기계공학과 음악동아리 '불고기 파티'가 오늘 4시 공대 시청각실에서 '제4회 가을 정기공연'을 갖는다.

'불파'는 이번 공연에서 'Sweet child o'mine' 'Big talk' '하나뿐인 그대'등 10곡을 준비해 막의 진수를 보여 줄 계획이다.

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수 있으며, 전자과 유악동아리 'CHAOS'가 우정출연한다.

HEXA 가을연주회

수원캠퍼스 고전기타 연구동아리 'HEXA'는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제과대 시청각실에서 '가을연주회'를 갖는다.

총 14곡이 선보인 이번 공연에서는 정통클래식과 세미클래식 두 장르의 곡을 중심으로 감미로운 기타의 선율을 드려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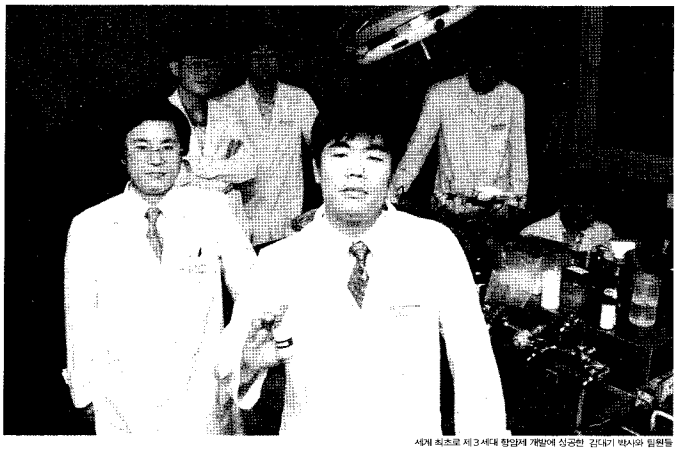
주요 연주곡으로는 정통클래식 곡 인 '줌 소 리', 'Concierto Para 3 Guitars', '기타협주곡 라장조 제2악장'과 세미클래식곡인 'Canon'등이며, Solo, Duo, Trio, Ensemble의 4부로 구성하여 연구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가을 정기연주회 대신 열리는 것으로 'HEXA'의 발표제도 겸한다.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수펙스 추구)

수펙스(Super Excellent Level) 추구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세계 일류기업들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 선경이 개발한 경영기법으로 현재 세계일류 기업들이 10년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상, 즉 Super Excellent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여 반드시 성취하자는 선경인들의 결의의지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미국이나 일본의 뒤만 따라갈 것인가?"



세계 최초로 제3세대 항암제 개발에 성공한 김대기 박사와 팀원들

4년전, 생명과학 연구소 김대기 박사와 그의 팀원들이 기존의 항암제보다 한차원 앞선 새로운 개념의 제3세대 항암제를 우리 힘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을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일류기업들도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성공 확률은 1/12,00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이나 일본의 뒤만 따라갈 것인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보다 훨씬 앞선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앞지를 수 없다."
결국 이들의 열의는 회사의 전적인 지원으로 이어졌고 암과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화합물의 합성, 약효 및 독성검색이 되풀이 된지 4년—
결국 김박사를 팀장으로 한 팀원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마침내 세계 최초로 제3세대 항암제 개발에 성공, 암정복의 전환점을 우리 손으로 이루게 된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 하다고 했을때, 오히려 우리는 도전해볼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져 있을수록 이들보다 앞선 목표를 추구해야 경쟁이 가능한것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임상실험도 성공시켜 암정복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이들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게만 보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